

“스완지 산소탱크라 불러주오”

기성용 풀타임 활약...WBA에 3-0 승

효과적 볼 배급·수비 지휘...팀과 4년 재계약

한국 축구 대표팀의 미드필더 기성용(25)이 예리한 패스와 거친 수비로 스완지시티의 3연승을 도왔다.

기성용은 지난 31일(한국시각) 영국 웨일스 스완지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브로미치와의 2014-2015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홈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다.

그는 중앙 미드필더로서 공격전에 볼을 배급하거나 포백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스완지는 웨인 라우틀리지가 한 골, 네이션스 다이어가 두 골을 터뜨려 웨스트브로미지를 3-0으로 완파했다.

스완지는 지난 12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개막전, 24일 번리와 2라운드 홈경기를 포함해 3연승을 달렸다. 리그 컵대회를 포함하면 올 시즌 4연승의 상승세를 자랑하고 있다.

기성용은 스완지의 4-2-3-1 전술 대형에서 존조 셸비와 중앙 미드필더로 짝을 이뤘다.

셸비가 뒤로 처지고 기성용이 공격에 깊이 가담할 때도 있었으나 이날 경기에서 기성용의 역할은 수비에 더 가까웠다. 기성용은 최전방 공격수 윌프리드 보나, 웨인 라우틀리니, 다이어, 공격형 미드필더 길피 기구르드손에게 전진 패스를 전했다.

수비라인의 바로 앞에 포진해 상대 미드필더들의 창의적인 공격을 봉쇄하는 1차 저지선의 역할도 충실히 했다. 경기 전체를 조율하면서도 전열에 투지를 불어넣으려고 노력하는 기성용의 거친 수비는 특히 주목을 받았다.

기성용은 후반 중반 웨스트브로미치가 추격 의지를 높여갈 때 최전방으로 뛰어나가 적극적인 전방압박을 펼쳤다. 볼을 따라 풀백, 센터백을 압박하다가 골키퍼에게까지 달려들어 회피성 퉁크를 유도해냈다. 그러나 기성용은 그 과정에서 골키퍼 발에 사타구니를 맞아 그라운드 위를 구르면서 통증을 호소했다. 그는 한참 뒤에 통증을 달래고 일어나 홈 관중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기성용은 후반 15분 페널티지역 왼쪽 외곽에서 한 차례 슈팅을 시도했으나 볼은 골키퍼의 품에 안겼다.

그는 2-0으로 앞선 후반 18분 보나를 향해 스투패스를 찔렀으나 이도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아 공격포인트는 불발했다. 패스가 예리해 상대 수비수가 골키퍼 앞으로 영겁결에 볼을 차냈고 당황한 골키퍼도 이를 잡아버렸다.

반칙으로 페널티지역 안에서 간접 프리킥이 선언됐으나 스완지는 기회를 골로 연결하지 못했다.

기성용은 허슬플레이를 계속 이어가다가 후반 27분 상대 크레이그 가드너와 부딪쳐 넘어지면서 경고를 받았다.

앞서 지난 28일 기성용은 스완지시티와 4년간 재계약에 합의했다.

스완지시티는 이날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성용과의 재계약 사실을 발표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스완지시티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기성용은 이로써 2018년까지 스완지시티 유니폼을 계속 입게 됐다.

기성용은 2009년 12월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으로 이적하며 유럽 무대에 진출했고 2012년 8월에 스완지시티로 옮겼다. 기성용의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스완지시티의 기성용이 지난 23일 번리와 경기에서 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신지애, 화려한 부활

JLPGA 니토리 레이디스 우승...시즌 3승

신지애(26)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니토리 레이디스(총상금 7000만엔) 정상에 올랐다.

신지애는 지난 31일 일본 홋카이도 에니와 컨트리클럽(파72, 65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2개를 기록해 최종합계 8언더파 208타로 우승했다.

10일 끝난 메이저컵에서 우승한 신지애는 8월에만 두 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으며 이번 시즌 3승을 달성했다. 일본 무대에서는 통산 8승째다.

2라운드까지 2위에 2타 앞선 선두였던 신지애는 공동 2위인 이보미(26)와 후지타 사이키(일본)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1260만엔(약 1억23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시즌 상금 6812만 7333엔을 기록한 신지애는 상금 부문 4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장하나, 꿀맛 우승

하이원 리조트 오픈...8개월만의 정상

장하나(22·비씨카드)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리티 하이원 리조트오픈(총상금 8억원) 우승을 차지했다.

장 하나는 지난 31일 강원도 정선의 하이원 컨트리클럽 마운틴벨리 코스(파72, 656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2언더파 204타의 성적을 낸 장 하나는 10언더파의 전인지(19·하이트진로)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지난 시즌 삼금왕, 대상, 공동 다승왕(3승) 등을 차지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장 하나는 지난해 12월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다. 현대차 중국여자 오픈은 지난해에 열렸지만 2014시즌 대회로 인정되므로 시즌 2승째가 된다. 우승 상금은 1억6000만원이다. 장 하나는 또 시즌 상금 4억8326만원으로 상금 부문 2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연합뉴스



앞줄 왼쪽부터 국성군청 볼링팀의 김유리·김현미·강대연 감독·이나래·김문정, 뒷줄은 변선민·김가람·남옥길.

곡성군청, 전국실업볼링여자부 종합우승

곡성군청 볼링팀이 전국실업볼링대회에서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곡성군청 볼링팀은 지난 28일 경북 안동시 안동볼링장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실업볼링연맹회장기 전국실업볼링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 우승기를 거머쥐었다. 지난해에 이어 2연패다.

김현미·김문정이 조를 이룬 2인조전에서 곡성군청은 합계 2849점, 평균 237.4점을 기록해 서울시설공단과의 이연지·백승자(2672점, 평균 222.7점)를 밀찌감치 따돌리고 금메달을 안았다.

5인조전에서는 김문정·변선민·이나래·김가람·김현미가 6560점(평균 218.7점)을 합작해 금빛 스트라이크를

선보였다.

이번 대회에서 김현미는 2인조전 1445점(평균 240.8점), 5인조전 1388점(평균 231.3점)을 기록,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김현미는 또 개인종합에서 5403점(개인전 1294점, 2인조전 1445점, 3인조전 1276점, 5인조전 1388점)을 얻어 은메달을, 마스터즈전에서도 237점으로 은메달 2개를 추가했다.

남자부에서는 광양시청이 3인조전에서 류지훈·황동준·차인호가 3039점(평균 224.4점)을 획득해 4077점(평균 226.5점)을 얻은 부산시청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